

45년 한우물... '명문장수기업' 10개사 등극

중기부, 업력 45년 이상 명문기업 선정 올해 8대1 경쟁률... 선풍식품 등 10개사 기업 이어 지속성장, 기업에 본보기 될 것

선풍식품, 금성출판사 등 10개사가 명문장수기업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이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은 2017년 처음으로 6개사에서 시작해 올해까지 총 53개사로 늘어났다.

중기부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9회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엔 당초 82개사가 명문장수기업에 신청해 8대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명문장수기업은 국내 업력 45년 이상 중소·중견기업 1만6743개사 가운데 신청을 받아 사회적 책임과 경제적 기여, 연구개발(R&D) 등 혁신활동 등을 종합평가해 선정한다.

올해에는 중소기업중앙회 금성출판사, 대양전기공업, 동미전기공업, 성일에스아이엠, 천연식품, 중견기업에선 금용기계, 리노공업, 선풍식품, 씨티알, 케이피에프가 명단에 올랐다.



(왼쪽 6번째부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9회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수여식'에서 수상기업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금성출판사는 국내 대표적인 교과서 출판기업으로 학습지 '푸르넷'과 영어프로그램 '잉글리시 버디' 등 에듀테크 프로그램을 개발, 19년 연속 학부모들이 뽑은 최고의 교육브랜드로 선정되는 등 미래 교육에 앞장서고 있다.

대양전기공업은 선박용 조명기기 국산화를 시작으로 국내 최초, 세계에서 4번째로 바다의 97%를 탐사할 수 있는 6000미터급 무인잠수정 기술을 개발해 한국이 세계적인 해양강국으로 발돋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77년 업력을 바탕으로 간장업계 1위를

수성하고 있는 선풍식품은 우리장과 발효 연구로 '요리에센스 연두', '폰타나' 등 독립브랜드를 선보이며 우리의 식문화를 해외에 알리고 있다.

오영주 장관은 "그동안 오일쇼크,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숱한 어려움 속에서 기업을 이어 지속성장한 명문장수기업이야말로 많은 기업들에게 본보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중소·중견기업이 세대를 이어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승계 지원과 함께 명문장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발굴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텐텐과 성장한 소비자, 한미약품 갈등 바라보며



기지 수첩

이 청 하
(유통&라이프부)

최근 몇 년간 유통 업계 전반에서 레트로 열풍이 지속되고 있다. 추억을 소환하는 유행은 복고풍을 넘어 새로운 문화로 진화했다. 1020세대에게는 신선한 자극과 재미를, 30대 이상 세대에게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요소들이 재조명 받는다. 특히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어린 시절을 보낸 세대가 성인이 되자 그들이 경험했던 아이템들도 소비 시장을 휩쓸고 있다.

이러한 소비 흐름을 반영한 뷰티 브랜드의 경우, 국내 화장품 시장에 캐릭터와 협업한 한정판 제품을 내놓았다. 국산 토종 캐릭터인 1983년생 '둘리'부터 '쿠로미'로 세대 교체에 성공한 일본 산리오의

원조 캐릭터 '헬로키티', 듣는 순간 기분을 설레게 하는 주제곡까지 사랑받은 '카드캡터 체리' 등이 속속 다시 등장해 소비자 인기를 끈다.

레트로 감성은 제약 시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한미약품 어린이 영양제 '텐텐'이 대표적이다.

텐텐은 한미약품이 1994년 미니텐텐이라는 이름으로 출시한 일반의약품이다. 당시 빨간색의 딸기향을 갖춘 이 제품은 길다란 빨간색 원통에서 하나씩 몰래 꺼내 먹으며 쫄쫄한 맛과 그 특별한 기분을 즐겼던 어린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후 한미약품은 텐텐 성분을 강화하고 복용 대상을 전 연령대로 확장해, 어린이와 성인 모두를 폭넓은 소비자층으로 확보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추억과 함께 자리 잡은 텐텐과 한미약품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한

미약품 창업주 임성기 회장이 타계하면서 빈 자리에서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갈등이 커졌다. 둘로 갈라진 갈등의 주체들은 창업주가 평생 실천한 신약개발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하면서도 싸움은 그치지 않는다.

창업주 철학을 따른다면, 한미약품의 발전은 단순히 고(故) 임성기 한미약품 창업주 이름에 의존한 것이 아니다. 또 한미약품 오너 일가만이 누려야 할 것도 아니고 경영권 싸움의 소재가 되어서는 더욱 안 된다.

현재 연구개발에 집중하며 성과를 거두고 있는 한미약품은 신약개발과 같은 도전적인 과제를 이룩하기에 앞서, 텐텐을 사랑한 평범한 소비자들 곁에서 오랜 시간 신뢰를 쌓아온 국내 대표 제약 회사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 가치가 한미약품의 가장 큰 자산임이 경영권 싸움에 가려지지 않기를 바란다. /mlee236@

오늘의 운세 11월 20일 (음 10월 20일) http://www.saju4000.com

쥐 36년생 주변 정리로 심신의 안정을 취하라. 48년생 큰 그림을 그려나 현실은 만만치 않다. 60년생 사소하게 시작된 언쟁이 배반을 일으킨다. 72년생 친구와 의견 차이로 약간의 손해가 있을 수 있다. 84년생 빌려준 돈이나 선물이 들어온다.

소 37년생 손톱 밑 작은 가시로 마음고생. 49년생 평소 예의 바른 행동이 작은 허물을 덮어준다. 61년생 구설수를 조심하고 특히 가족과의 대화에 주의. 73년생 오후에 친구들과 과한 음주는 조심히. 85년생 헛된 욕심이 없어 밝게 살아왔기에.

호랑이 38년생 분실수가 있으니 사람 많은 곳은 조심. 50년생 근거 없는 자만심으로 좋은 기회를 놓친다. 62년생 내 것이 작아 보여도 소중하게. 74년생 시작하다 보면 생각의 폭이 드넓어진다. 86년생 무리일지라도 시작한 일은 끝을 봐야 한다.

토끼 39년생 마음이 울적해도 음주는 주의. 51년생 노력의 결과가 생각만큼 나오지 않는다. 63년생 가뭄이 해결되듯 일이 잘 풀린다. 75년생 좋은 일은 누구나 알 수 있게 알려서 활용. 87년생 자신의 시간을 뒤돌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말 40년생 유쾌하고 즐거운 일이 넘친다. 52년생 일이 어려우나 주변의 도움으로 해결. 64년생 웅떠와의 거래가 순탄치 않다. 76년생 사랑 타령으로 고집을 세우면 사회적 인발전은 더더진다. 88년생 두 가지가 다 좋을 수 없으니 하나는 양보.

뱀 41년생 우물을 찾았으나 두레박이 없으니 답답. 53년생 분수에 맞춘 약속을 소중히 하도록. 65년생 믿음을 갖고 기다리면 좋은 결과. 77년생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이니 자신감을 가지자. 89년생 매화가 피었다고 겨울이 끝난 것은 아니다.

닭 42년생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동. 54년생 상대의 단점을 말하면 내게 돌아오니 말조심 할 것. 66년생 의견통일이 어려우니 중심을 잘 잡자. 78년생 여럿을 크게 합치는 대동단결이 있으면 이휘휘. 90년생 믿어주는 사람이 많으니 행복.

양 43년생 발등을 찍는 것은 내 탓이다. 55년생 너무 방만하면 위험에 빠지기 쉽다. 67년생 소박해도 능력이 있으니 즐거움이 따라온다. 79년생 도전할 기회가 오니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 91년생 오후 유혹이 많은 날이니 자중자해야시길.

원숭이 44년생 계획에 없던 지출이 생기니 과소비를 주의해야. 56년생 욕심만 버리면 기본 좋은 하루. 68년생 판단력이 흐려지니 도장을 찍을 때는 신중하. 80년생 남이 던져주는 희망에 기대지 마라. 92년생 무관심했던 자녀의 특기를 잘 살펴보라.

닭 45년생 남동쪽으로 역마의 운이 있다. 57년생 자신 없는 일을 맡아 종일 마음이 불편할 것이다. 69년생 나만이 아니라 누구나 아픔은 있다. 81년생 떠나기도 어렵고 머무르기는 더 어려운 상황. 93년생 손님이 오니 즐거운 소식을 들고 온다.

개 46년생 능력 이상의 일을 해도 무리가 없다. 58년생 누구에게나 지고도 이기는 법이 있다. 70년생 주석에는 조그람이 화를 부른다. 82년생 경험은 세상살이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 94년생 보기 싫던 사람도 아쉬울 때가 있으니.

돼지 47년생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는지 모른다. 59년생 총인도 사람을 바가며 따라야 하는 법. 71년생 운이 상승하니 용기를 내서 일을 추진. 83년생 복권에 당첨되려면 돈 주고 복권을 사지 마라. 95년생 앞에 이익이 있으나 발견하지 못한다.

김상회의四季 머피 자기암시

머피가 다시 살아서 온다면 적극적으로 머피의 법칙에 대해 괴력할 것만 같다. 많이 불운하거나 불행한 일에 대하여 쓰는 것은 아니더라도, 가볍게 재수없을 때 쓰는 의미미인 해도 머피의 법칙과 같은 일이 발생하면 이를 징크스로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그의 의도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머피의 실험과정에서 발생한 해프닝에 대해 머피의 상사였던 로버트 매튜스라는 사람은 "우주가 실제로 우리를 반대한다(Universe really is 'against us')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뭔가 상황이 달라진다. 머피의 의도와 설명과는 달리 그는 뭔가 인간의 힘으로 제어되지 않는 어떤 미지의 힘이 일정 부분에서 실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저서 '머피 법칙의 과학' (The Science of Murphy's Law)에서 밝히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머피의 법칙을 재해석한 로버트 매튜스의 견해에 동감하는 것이다. 인간들은 만물의 영장이라 자부하면서도 자연에 대한 무의식적인 두려움과 경외심이 있다. 자연 앞에서 인간은 작은 미물일 수밖에 없는 것도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어떤 거대한 힘이 우주와 천지에 작용하는 에너지장이 작용하고 있음이다. 원래적 머피의 법칙처럼 뭔가 안 좋은 운기의 대운이나 신살, 패가 보이면 사람들은 풀부터 죽는다. 그러나 그 패에 눌러버리면 이것이 바로 머피의 법칙이 되어버린다. 암시가 굳어져 스스로 부정적 기운을 다지게 된다. 비가 온다는 예보 자체는 불운이 아니다. 들고도 우산 준비를 못 하는 것이 불운이니 부정적 자기 암시를 가져서는 안된다. 부정적 인식은 마음속에 그림자를 남기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실제로 일은 끝까지 법칙처럼 작용한다. 마음은 훈련할 수 있고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다. 부정적으로 인식된 머피의 법칙은 던져버려라.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곳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5			3	7	6
		1		3	
8	3		4	5	
	3				7
7	8		2	5	3
	5			6	
		4	1		3
	4		2		8
3	2	6			5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열과정을 즐기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9	1	7	8	9	6	2	3	8
2	9	6	2	9	8	7	8	1
8	8	2	2	1	7	9	6	9
1	7	9	8	2	8	6	9	2
8	6	9	7	2	9	8	1	2
2	2	8	1	6	9	8	9	7
6	2	1	9	7	1	9	8	8
7	9	8	9	8	1	2	2	6
9	8	2	6	8	2	1	7	9

9	7	8	2	8	1	2	9	6
9	1	2	9	6	2	8	7	8
6	2	8	9	7	8	2	1	9
2	6	9	2	1	8	8	9	7
8	8	1	7	9	1	9	6	2
7	9	2	8	9	6	1	2	8
1	2	9	8	2	7	6	8	9
2	9	6	1	8	9	7	8	2
8	8	7	6	2	9	9	2	1